**마2644 Note**

**◆이정표: 예수님의 헌신과 성별의 기도**

Ω마2636.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불리우는 곳에 오시어, 제자

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Ω마2637. 그리고 그분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 가시어, 비통해 하며

(뤼페오: 고통하다,슬퍼하다,슬프게 하다,근심하다,슬프다,서운하게 하다) 매우 무

거워하기(아데모네오: 괴로워하다,마음이 무거운,매우 슬픈,낙담하게 되다,풀이 죽

다) 시작하시니라.

마2638.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비통하니, 바로 사망에

까지라.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망보라(그레고류오:깨어 있다,정신 차

리다,경계하다,주의하다),

Ω마2639. 그리고 그분께서 조금 더 가셔서, 그분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니

라, 말씀하시되, 오, 내 아버지시여, 만일 이것이 가능하시면, 이 잔으로 내게로부

터 지나가게 하소서(파레르코마이: 가까이 오다,곁에 오다,접근하다,도착하다,가다,

사라지다,소멸하다,소홀하다,파하다,지나가다). 그럼에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고,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옵소서.

Ω마2640.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어, 그들이 잠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

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망볼 수 없더냐?

마2641. 망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니라, 참으로

영(靈)은 기꺼이 하고자 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Ω마2642. 그분께서 다시 두번째로 가시어 기도하시니라, 말씀하시되, 오, 내 아버

지시여, 만일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그것이 내게로부터 지나가지 않으면,

당신의 뜻이 행해지소서.

마2643.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어, 그들이 다시 잠자는 것을 보시니라, 이는 그들의

눈들이 무거웠음이라(바레오:내리누르다,짐을 지다,책임을 맡다,무겁게 하다,누르

다).

Ω마2644.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가시어, 같은 말씀들을 말하시며

세번째로 기도하시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얻는다든지,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자신을 내드리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

시기 원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 성별, 헌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헌신의 기도는 다른 믿음의 기도와 같이 한번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헌신의 기도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 평생 드리는 기도입니다.

<만약>의 단어 사용가능 ; 이때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

다.

눅2242. 이르시되, 아버지시여, 만일 당신께서 기꺼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잔을 나

로부터 치우소서, 그럼에도, 내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이 행해지소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숫한 갈림길을 경험하게 되고,

매 갈림길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때마다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기도를 수도없이 해야 하는 이

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전적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헌신할 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대하1609. 이는 그 마음들이 그분을 향해 완전한 자들을 위해 자신이 강하심을 보여

주시려고, 여호와의 눈들은 온 땅에 두루걸쳐 이리저리 달리심이니, 이점에서 당신

이 어리석게 행했도다,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부터, 당신은 전쟁들을 치르나이다.

50년 전에는 성령충만 받은 성도가운데 오늘날과 같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령님의 역사도 오늘날에 비해 훨씬 크고 지속적으로 나타났었

습니다.

"맞다. 내 백성의 헌신도 역시 훨씬 컸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예배 후에 강단주변에 모여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제단 위에 얼마만큼은 기꺼이 바치려고 하지만, 모두 다 바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자신을 전적으

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를 받고,

그들은 그분의 복 가운데 많은 것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선택하지 않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한 것이

아닌 그런 시련들을 만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은 앞이 안보이고 멀리 내다

보이지는 않는 산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는 좁은 길일지라도, 믿음과 순종의 길

에서만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한발자국 한발자국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노라면, 그 산과 계곡을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며 위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분께 기꺼이 복종할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

획과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그분의 온전한 기름부음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내가 기꺼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분의 지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이 기꺼이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잔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를 위하여 좋을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롬1129. 이는 하나님의 선물(카리스마:신성한 선물,구속,영적인 증여,자질부여,신비

한 능력,값없는 선물,부여된 은총)들과 부르심은 후회가 없음(아메타멜레토스:취소

할 수 없는, 후회없는,후회되지 않는)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실한 결단을 한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주님이 가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주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내가 잇는 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던지 관계없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

수 그리스도의 기쁜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고 헌신

되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나는 나의 모

든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 놓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닥치고 환경이 나를 이리 저리로

휘두를 때에도 흔들림없이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기도 – 케네스해긴**

주님, 나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삶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가 당신께 모든 것을 항복하여 바쳤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고 헌신되어

당신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는 육신을 거절함으로써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밤중에 부르시면

나는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눈에 전혀 뜨이지 않고

항상 무대 뒤에서만 일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신실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당신의 완전한 뜻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사역에서

당신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거절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